

## 북한의 과학 기술 정책: “백 걸음으로 달리자”

심규석 / 연합뉴스 북한부 기자

**“나** 이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과학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북한은 과학 기술 개발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사’라고 강조하며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같은 과학 기술 중시 풍조는 지난 1998년 8월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광명성1호’가 발사된 이후 한층 무르익고 있다. 특히 지난해를 ‘과학의 해’로 지정했던 북한 당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강성대국 건설 3대 기둥의 하나로 ‘과학 기술 중시 사상’을 선정하는 등 과학 기술 발전을 국정 지표로 내걸어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말경 전자공업성이 내각의 한 부서로 신설되기도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북한 당국은 ① 최첨단 과학 기술 개

발, ② 과학 기술 성과와 기술 혁신안의 적극적인 생산 부문 도입, ③ 과학 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④ 전사회적 과학 중시 기풍 확립 등을 중심으로 한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왜 과학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경제 원동력이자 경제 붕쇄 극복 수단

북한 당국이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의 배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과학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와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 이들 국가의 경제 붕쇄를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3월초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건설한 모든 공장·기업소의 생산을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포위 속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자립 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 기술 개발 정책은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과학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공학을 비롯한 최첨단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총예산 가운데, 과학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10% 증액했다. 지난해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 회의에서 임경숙 재정상은 "올해는 과학의 해이며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면서 전자공학을 비롯한 최첨단 분야의 과학 연구에 주력할 것임을 선포하기도 했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투자 의욕도 대단하다. 지난해 2월 조업한 황해제철소 '산소열법 용광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산소열법 용광로란 수입에 의존하던 코크스를 북한 지역에 흔한 무연탄으로 대체하는 공법으로 3년여의 연구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김 총비서는 당시 이 공법에 대한 연구를 황해제철소에 지시하면서 "자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학 기술 개발의 성지인 과학원의 연구 사업 확대를 위해 막대한 자금 지원도 지시하는 등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과학 기술 부문 투자 확대에 대한 공고한 입장을 강조했었다. 지난해 1월 과학원을 방문한 김 총비서는 "과학원은 투자하는 기관이지 돈을 (국가에) 바치는 기관이 아니며 과학은 100% 투자"라고 강조, 과학 기술 부문 투자 확대에 확고한 입장을 밝혔었다.

두번째 특징은 과학 기술 개발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 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추동력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연구 사업은 전자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생물공학 등 전분야에 걸쳐져 있다. 지난해 3월 열렸던 '전국 과학자·기술자 대회'에서 홍성남 내각 총리는 ① 전기·식량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② 금속·기계·철도 운수 등 선행 부문에 주력하며, ③ 전자·열공학·생물공학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이론은 필요없다, 오직 실리뿐”

세번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이론적인 것보다 실리적인 과학 기술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에 도입되지 않는 과학 기술은 빈 중잇장이다”, “우리나라 혁명에 복무하고 우리 인민의 이익에 이바지하지 않는 과학 기술은 그것이 아무리 발전되고 현대적인 것이라 하여도 쓸모가 없다”는 김 총비서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북한 당국의 과학 기술 개발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당국은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과학 기술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네번째로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인재 찾기는 각 대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 열린 제10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신진 세력으로 부상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전국과학기술축전을 개최, 우수 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한 500 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과학탐구상’이 수여됐다. 이 상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 년 동안 4,700여 명이 수상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 역시 특별하다. 몇 년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당국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생활 조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식량·상품 공급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당원이나 행정 관리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복지 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전례에 비취볼 때 대단한 지위 격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북한 로동신문도 지난해 3월 “우리는 온 나라에 과학 중시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해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우대해 주어야 한다”면서 내각의 위원회·성에 대해 지원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섯번째로는 과학 기술 개발과 국방 산업의 연관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과학 기술 개발 필요성의 하나로 제국주의 국가와의 대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말경 북한의 중앙방송은 “최첨단 기술에 의해서 고도로 현대화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가진 威力한 군사강국도 높은 과학 기술에 의해 건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송은 “현 시기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 과학 기술 발전이 체제 유지의 관건임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포의 자행 자동화,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 과학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전자공학 성과 두드러져

북한 당국의 과학 기술 개발 수준은 '자력갱생'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어 그 수준이나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 개발은 모두 이 계획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3월 '전국 과학자·기술자 대회' 당시 알려졌던 이 계획은 아쉽게도 그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전자·기계·생물·열공학 등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2000년 과학 기술 전망 목표를 수립해 추진한 적이 있어, 이로써 북한 과학 기술 발전 정책의 향후 방향과 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00년 과학 기술 전망 목표의 내용은 ① 수학 등 기초 과학 발전 토대 구축, ② 컴퓨

터와 원자력 이용 등 첨단 과학 기술 발전 도모, ③ 금속·전자·기계공업·경공업·농업 등 산업 전부문의 과학 기술 발전, ④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 기술 분야에 투자, ⑤ 박사·준박사 등 200만 명의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 ⑥ 유엔개발계획(UNDP) 등 과학 기술 기구와 교류 증대 및 지원 기금 확보를 통한 선진 기술 도입, ⑦ 현장 연구소의 현대화 등 연구 환경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북한이 내놓았던 2000년 과학 기술 전망 목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따라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은 2000년 과학 기술 전망 목표에 기초해 이를 한층 확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볼 때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자공학 부문의 성과가 눈에 띄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대 과학 기술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전자공학의 개발 중요성을 강조하며 컴퓨터와 고밀도 집적회로(VLSI), 인공지능, 자동화 연구 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부문에서는 생산 부문 현대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한창인데, 북한의 방송들은 지난 한 해 동안 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KCC)는 토지 정리·건설 계획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천지개벽'을 개발했으며 여러 대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서도 생산공정자동화체계 개발 프로그램, 컴퓨터망(네트워크)에 의한 생산지휘체계, 전력 계통 감시·운영분석체계 등을 개발했다.

컴퓨터 부문에 대한 김 총비서의 관심은 대단하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내가 직접 컴퓨터 기술을 연구하면서 이 부문 과학 연구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이다. 북한 교육성(상 변영립)도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공학 부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대학·이과대학 등 내노라 하는 대학에 컴퓨터 관련 학과를 신설했다. 또한 고등중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도 매년 실시하는 등 컴퓨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 지능 개발도 주목된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과학대학의 김영준 교수는 수십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생산 공정을 제어하는 일종의 측정 감시 및 조종체계인 '인공 지능적 방법에 의한 환경 인식 방법'을 개발했고 안내 로봇 개발 사업에서도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원 개발 부문에서는 부존 자원 개발을 위해 위성 정보·자료 해석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과학원(원장 리광호) 원격 조사 및 지학정보체계연구소에서 주관한다. 연구소는 최근 북한식 프로그램에 의한 위성 정보·자료 처리기술을 개발, 관련 부문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이 기술은 위성 정보·자료를 컴퓨터로 판독해 ① 산림과 토지의 유형별 면적, ② 수종별 분포 경계와 면적 등은 물론 전역의 지질 구성과 지하 자원 매장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정보 처리 기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관련 기관에서는 최근 북한 전역의 지열 상태를 확인해 온천과 지하수 위치를 파악했으며 석탄·구리를 비롯한 여러 광물 매장지도 새로 찾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지리정보연구소에서도 위성 정보·자료를 이용해 국토 계획 작성, 도면 작성, 계산 공정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 먹는 문제, 생물공학으로

유전자 및 생물공학 부문의 연구 사업에서는 세포 및 유전자 관련 핵심 기술을 완성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시약을 국산화함으로써 해충 등에 강한 새 품종의 농작물을 육종하는 것은 물론, 가축을 대량 증식시키는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인체의 성장 호르몬을 미생물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벌레를 죽이는 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 유전자를 이용해 耐蟲性 식물을 내놓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21세기 제2차 녹색 혁명의 기본이 되는 유전자 전이 농작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량 가축을 대량 번식시키기 위한 배자 이식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며 재배종과 야생종을 결합시켜 수확량이 많은 곡물을 만들거나 방사선을 이용해 번식률이 뛰어난 돌연변이 개체를 만드는 유전자공학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전자 및 생물공학 연구 사업에는 과학원의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농업과학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료공학 부문에서는 집적회로에 사용되는 화학물 반도체와 고순도 및 초전도 재료, 특수 구조용 복합 재료 등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과학원은 고밀도와 초고밀도를 모두 포함한 대규모 집적회로(LSI) 대량 생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998년 9월 평양에 집적회로 공장을 건설했으며 지난

해 6월에는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집적회로 계열 생산 공정을 갖추기도 했다.

또한 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는 조선과학기술총연맹(위원장 최희정)을 후원해 지난 1998년 9월 '전자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력 축적에 주력하고 있고 과학원 유색금속연구소도 현영라 박사의 주관 아래 콤팩트 디스크용 특수 합금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놓았다.

기계공학 부문의 대표적 성과로는 30만 배율 전자 현미경이 꼽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 현미경 개발을 지난 1998년 8월말 쏘아올린 인공위성 '광명성 1호'에 이은 또 하나의 과학 성과로 꼽고 있다. 지난해 2월말 '11월19일연구소' 청년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현미경은 광선 대신 전자빔을, 광학 렌즈 대신 전자 렌즈를 쓰는 방식으로 "금속 및 미생물 세포를 비롯한 물질 조직을 30만 배 확대해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며 전자계산기(컴퓨터)에 기억시킬 수 있는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북한 언론들은 자랑했었다. 남한의 일부 과학자들도 "획기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북한 나름대로 전자현미경 개발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계산기연구소와 과학실험기구연구소도 성능 높은 走査式 전자현미경을 연구·제작해 내놓았다. 금속을 비

로운 다양한 재료의 구조, 생김새, 물리 화학적·전자기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관찰·분석할 수 있는 이 현미경은 집적회로 제작, 신재료 개발과 생물공학, 초미세 가공 분야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기계공학 부문에서는 이외에도 설계 및 가공 기기의 자동화, 초정밀 가공 설비와 전자 측정 설비 자체 생산 등의 목표를 세우고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속공학 부문에서는 산소열법에 의한 철 생산공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표적 수출품인 마그네시아클링커와 내화물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열공학 부문에서는 복합 발성 기술과 다연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을,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기초 화학 제품의 양산체제 구축과 고성능 촉매 및 정밀 유기 합성 재료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과학 기술 발전하면 강성대국

이러한 북한 당국의 과학 기술 개발 정책은 강성대국 건설 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가 동물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중앙공장은 물론 4,000여 개에 이르는 지방 공장이 정상 가동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공장·기업소가 노동 집약적 산업에 국한돼 있으며 그 성장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가뭄으로 심화된 전력난은 공장·기업소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번 겨울에 나타난 전력 부족 현상이 국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생산이 저조한 원인은 전력난에 큰 원인이 있겠지만 각종 기술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북한은 “지금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학 기술적 문제가 수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결정적으로 과학 기술 발전을 앞세워 나가는 여기에 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경제난을 극복해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주요 방편이 과학 기술뿐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당국도 ‘무거운 과업’, ‘선차적인 문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사’ 등으로 강조하며 과학 기술 중시 노선만이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켜 경제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도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그것

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면서 과학 기술 중시 노선을 부각시켰었다. 김 총비서도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 기술은 경제적 진보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과학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 국제 과학 기술 협력에 적극 나설 듯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과학 기술 발전 정책이 자력갱생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최첨단 과학 기술 수준은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력난을 이겨내기 위해 등장한, 눈에 띄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기계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력갱생식의 기술 개발은 한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총체적인 경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력갱생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과학 기술 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노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 기술에서조차 내걸려 있는 주체성, 자력갱생은 선진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북한 당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경제 부문 협력이 다소 축소됐지만 과학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은 개선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양국간 과학 기술 협력은 지난 1997년 조인된 과학 기술 협조 협정이 기폭제가 됐는데 이 협정은 전자·생물학·화학·물리학·열공학·농업·의학 등 20여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보호소와 원산농업연구소간, 로스토프 수리화학연구소와 수문기상관측위원회간 협조가 추진되고 있다. 또 해양 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화학연구소와 청진·남포시 연구소간에 긴밀한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250여 명의 북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기관들에서 교육을 받았고 150여 명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을 다녀가는 등 교환 사업도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 과학원은 우크라이나 민족과학원과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독일, 페루, 멕시코 등과 과학 부문 교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 협력에서도 전자 업체 등을 선호하는 등 기술 이전을 통한 신기술 습



특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북한의 자세는 자체 과학 기술의 한계를 풀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북한의 기초 과학 기술 수준은 남한의 몇 배 이상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기초 과학 토대가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자체 평가하며 수학·물리학·화

학·생물학 등 기초 과학 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 당국이 2000년에 접어들어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그들의 과학 기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完】**

〈표〉 과학 기술 관련 조직

구분	기관명	책임자	비고	
내각	과학원 (원장 리광호)	새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원장 허광춘	첨단 기술 개발 차원에서 80년대말 신설
		전자자동화과학분원	원장 리선봉	첨단 기술 개발 차원에서 80년대말 신설
		프로그램종합연구실		1970년 창립, 소프트웨어 연구
		합흥분원	원장 리효선	
		생물분원	원장 김성근	
		금속분원		
		기계분원		
		경공업과학분원	원장 리주웅	
	농업과학연구원			
	전자공업성		상 오수룡	1999년 11월 24일 신설
프로그램 개발 기관	조선컴퓨터센터		소장 김영호	1990년 10월 창립
	평양정보센터		소장 최주식	1991년 7월 창립
	컴퓨터요원양성센터			1991년 4월 창립
	컴퓨터프로그램강습소			1995년 6월 창립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		소장 강영준	
연구 기관	경공업과학분원			
	농업과학연구원		소장 김천영	
	프로그램종합연구실		소장 김동신	
주요 공장	평양집적회로공장		지배인 차성근	
	3대혁명붉은기 집적회로시험공장		지배인 류용수	
	단천영예군인반도체공장		지배인 천병직	

주: 공백은 미확인.